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 지속  
**산업·경제** 도심 '코워킹 허브' 건설로 산업발전 밑거름 기대  
시립 코워킹 스페이스, 전문가·시민들에 '큰 인기'  
**사회·복지** 사회환경 변화 반영한 '남녀 공동참여 계획' 시행

**행재정·교육** 311서비스, 앱·인공지능 활용으로 시민신뢰 '쑥쑥'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첨단기술 활용 접근성 극대화  
**환경·안전** '1,000개의 녹색지붕' 등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 지원  
**도시교통** 새 학기부터 어린이에게 시내 교통비 전액 지원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 지속

스타트업 역량 강화·생태계 구축에 긍정적 영향

인도 델리NCR / 산업·경제

인도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스타트업 발달과 맞물려 지속 확대되었으며, 모디 정부의 연임으로 당분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저렴한 비용과 편의성으로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직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를 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활용 중

## 사회적 배경

- 공유사무실인 코워킹 스페이스는 독립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의 공간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적은 비용을 지급하고 일정 공간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사무기기를 공동 사용
  - 사무공간의 제공 외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
    -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어 스타트업에 유용한 환경 제공
- 인도는 2017년 기준 스타트업 투자가 총 800여 건, 104억 달러(12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번째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강국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와 동반성장 진행
  -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는 1만 3천 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소유하여 미국, 중국을 잇는 대규모 스타트업 국가로 코워킹 스페이스 확산에 긍정적 영향
    - 인도 스타트업은 대부분 기술집약적 기업 간 거래(B2B)<sup>1)</sup> 시장에 집중
  - 높은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

## 주요 내용

-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코워킹 스페이스 확산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모디 정부는 창업 생태계 구축 노력 지속과 함께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
    -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
  - 2017년 지역정부 소유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인도 남서부의 망갈로르에 최초로 개관

1)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 주로 대도시 권역에 위치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방 중소도시에 개관하여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지역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
- 2018년 기준 인도 전역에 200여 개 코워킹 스페이스 업체가 약 400개의 지점을 운영
  - 대도시 권역인 델리NCR<sup>2)</sup>, 뭄바이, 벵갈루루 등을 중심으로 14만㎡ 이상의 공간이 임대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
  - 민간 전문업체인 91 Springboard, Awfis, Investopad, Innov8, Alt F 등이 인도 전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 지점을 운영
    - 글로벌 기업인 WeWork는 2017년에 진입하여 인도에 총 4개 지점 운영
    - W Square는 여성전용 코워킹 스페이스를 첸나이에 열어 여성 기업가와 휴직 여성 등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 델리NCR 지역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2016년에 30개를 넘었고, 2017년에는 40개를 웃돌며 성장세 유지
  - 총 2,500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하고 70% 이상의 좌석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며, 좌석당 매달 최소 약 1만 루피(17만 원) 지불이 요구
  - 최근 코워킹 스페이스 공급 확대의 주요원인은 프리랜서 전문가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 수요 증가의 결과로 풀이됨
- 대표적으로 델리NCR에 본사를 둔 'Innov8'은 2015년 설립되어 인도 전역에 13개 지사를 두고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 중
  - 코워킹 스페이스의 임대율이 약 95%에 달하며, 사업 성공에 힘입어 회사에 대한 투자도 증가세 유지
  - 일부 지점은 사무공간을 포함하여 경영, 회계, 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

## 향후 전망

- 모디 정부의 연임에 따른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기조가 유지로 코워킹 스페이스 수요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증가 예상
  - 2020년에는 2017년 기준 사용공간인 14만㎡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일부 회사는 직원 동기부여와 비용감소를 위해 직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적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수요가 더 확대될 전망
    - 특히 특정업무를 위한 프로젝트 단위의 조직은 더욱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면적도 수요충족을 위해 확대될 것으로 예측

2) National Capital Region, 광역수도권

- 코워킹 스페이스 확산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저렴한 비용과 편의성으로 인도 스타트업 시스템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신규 개발자에게는 인큐베이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개척을 기대
  -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역시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진출을 위한 사업거점을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활용 가능
- 장기적으로 상업지구의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
  - 적은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공유할 수 있음에 따라 토지의 사적소유 필요성 감소



[그림 1] WSquare의 코워킹 스페이스



[그림 2] Innov8의 코워킹 스페이스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small-biz/startups/government-to-set-up-workspace-for-startups-in-mangaluru/articleshow/59327537.cm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small-biz/startups/co-working-space-gains-popularity-in-delhi-ncr/articleshow/57391270.cms>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051910301634242](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051910301634242)

<https://www.cbre.com/research-and-reports/India-Major-Report---The-Art-of-Co-working-June-2017>

<http://www.etnews.com/20170310000276>

<https://www.financialexpress.com/money/what-is-driving-the-growth-of-co-working-space-in-india/1506720/>

[http://www.hdfcrealty.com/pdf/650905Lets%20Cowork%20India\\_QRLT%20Research.pdf](http://www.hdfcrealty.com/pdf/650905Lets%20Cowork%20India_QRLT%20Research.pdf)

<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mode=&skey=%B1%DB%B7%CE%B9%FA+%B0%DD%C0%FC%C1%F6%2C+%C0%CE%B5%B5+%BD%BA%C5%B8%C6%AE%BE%F7+%BD%C3%C0%E5&x=18&y=9&section=1&category=136&no=53791>

<https://www.vccircle.com/multi-family-office-leads-funding-round-in-co-working-firm-innov8>

박원빈 통신원, samc21@naver.com

# 도심 '코워킹 허브' 건설로 산업발전 밑거름 기대

미국 하와이주 / 산업·경제

미국 하와이주는 최근 프리랜서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코워킹 스페이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연방정부와 관련 공공·민간기관의 다자간 투자를 받아 도심에 코워킹 허브(Co-working Hub)를 건설 중임. 공유 사무공간 외에도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기기와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갖출 계획이며, 주정부는 이러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배경

- 프리랜서 근로자 증가에 따라 코워킹 스페이스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
  - 미국 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의 프리랜서 근로자 수는 5,67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400만 명 이상 증가(조사: Upwork and Freelancers Union)
  - 프리랜서 근로자에는 청년 창업가, 계약직 근로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가의 임대 사무실 대신 소규모의 장소를 대여해 다수의 프리랜서와 공유하는 방식을 선호
- 하와이주에도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정부 주도로 코워킹 허브를 건립 중
  - 지난해 12월 기준 하와이주 전역에서 총 22곳의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
  - 이 같은 분위기에서 최근 호놀룰루시 중심지에 주정부가 코워킹 허브를 건축 중

## 주요 내용

- 주정부가 스타트업과 프리랜서 근로자를 위해 코워킹 허브를 건축 중
  - 해당 코워킹 허브는 호놀룰루시 카카아코(kakaako) 일대에 지난해 4월 착공했으며, 이르면 7월 일반에 개방할 것으로 알려짐
  - 미 연방정부, 하와이주정부, 하와이기술개발공사, 하와이지역사회개발부,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부, 앙트레프레너 샌드박스(Entrepreneurs Sandbox) 등이 다자 투자 형식으로 약 750만 달러(90억 원)를 투자

- 넓은 면적에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장비·서비스 제공
  - 약 1,254㎡ 면적에 2층 규모로 건축 중
  - 개인 사무공간 외에도 디지털 미디어실, 회의실, 회상 회의실 등 협력공간 제공
  - 스타트업의 편의를 위해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등 각종 최첨단 사무 장비 일체와 무선 인터넷, 공기청정기, 스캐너, 영사기, 화이트 보드, 냉장고, 싱크대, 세척기, 각종 커피와 차 등의 음료 일체, 900곳의 주차시설 등을 지원할 방침
- 이용 요금은 서비스별로 다양하게 구성
  - 1일 25달러(3만 원) 또는 1개월에 225달러(27만 원)를 내면, 공동 작업공간 내의 1개 책상과 내부 편의시설, 회의실(4~12명 규모), 'Hotbox'(20명 수용 가능한 좌석과 테이블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추가로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이용권은 월 450달러(54만 원)
  - 외부 소음이 차단된 개인 사무실 1칸의 사용료는 월 950달러(114만 원)
  - 홈페이지에서 좌석예약부터 사용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만들 계획



[그림 1] 건축 중인 코워킹 허브



[그림 2] 코워킹 허브 내부 공간 모습

- 주정부의 코워킹 허브 외에도, 도심에 다수의 코워킹 스페이스용 건물이 건설 중
  - 대표적으로, 기존 코워킹 스페이스인 ‘The Box Jelly’가 사무실의 이전·증축을 발표
    - 일본계 투자업체에서 다량의 투자금을 받아 증축을 진행 중이며, 공사가 완료 되면 호놀룰루시의 핵심 공유 사무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하와이기술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자사가 소유한 다양한 첨단 기기를 제공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지원할 방침
  - 이 외에도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인근(1111 University Ave, #100, Mō‘ili‘ili)에 대학생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한 코워킹 사무실이 활발히 운영 중
    - 이곳의 특징은 1일 이용권 10달러(12,000원), 1개월 이용권 100달러(12만 원)로 일반 코워킹 사무실 비용과 비교해 저렴하다는 것
    - 단, 칸막이 없는 개방된 장소의 대형 책상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이며, 주요 고객이 인근 대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입실 후 오후 5시 퇴실을 조건으로 운영
    - 간단한 식음료가 무료로 제공되며, 개방 형태의 사무실 외에도 화상 회의실, 소규모 실내 체력단련실, 주방, 도서관 등이 배치
  - 데이비드 이계(David Ige) 하와이 주지사는 이 같은 분위기를 두고 “공유 사무실 확산은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혁신이 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이용자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해 하와이 산업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https://www.kakaako.com/blog/sandbox-coworking-open-kakaako-july-2019/>

<https://dbedt.hawaii.gov/blog/18-28/>

<https://www.htdc.org/htdc-breaks-ground-on-entrepreneurs-sandbox-facility-in-kakaako-set-to-be-complete-in-july-2019/>

<https://www.theboxjelly.com/>

<http://www.honolulumagazine.com/Honolulu-Magazine/September-2018/These-Two-Coworking-Spaces-on-Oahu-Are-Serious-Office-Goals/>

<https://www.hawaiibusiness.com/coworking-spaces/>

<https://coworkingmag.com/united-states/coworking-spaces-honolulu-hawaii/>

---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 시립 코워킹 스페이스, 전문가·시민들에 ‘큰 인기’

프랑스 보르도市 / 산업·경제

프랑스 보르도市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디지털 시티’(Cité Digitale) 사업을 시작하고, 다양한 실효적인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도시의 경제 발전과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시립 코워킹 스페이스 ‘노드’(NODE)도 그중 하나로, 2012년 개관 이후 많은 관련 전문가·시민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음

## 배경

- 첨단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도시정책인 디지털시티 사업이 진행 중
  - 디지털시대에 발맞추어 시민 삶의 질 향상, 시정서비스의 질 개선, 디지털 스타트업 장려·육성 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
    - 오픈데이터 공개·활용, 앱 개발, QR코드를 이용한 각종 정보 제공, 시 제공 공공 공간 무료 와이파이, 공립학교 디지털 장비 지원 등의 정책 시행
- 디지털시티 사업 중 하나로 시립 코워킹 스페이스 ‘노드’(NODE) 설립
  - 다소 역설적으로, 역사적인 구도심에 첨단 디지털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
    - 보르도 내외의 관련 업계 종사자, 스타트업 등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기획



[그림 1] 시립 디지털 코워킹 스페이스 노드의 외관

## 주요 내용

- 구도심 내 비어있는 시 소유 시설에 디지털시티 조성을 위한 코워킹 공간 마련
  - 오래전 양조장으로 사용된 공간인 ‘살 드 라 르네상스’(Salle de la Renaissance)는 원래 시가 행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했지만, 특정한 용도 없이 비어있던 공간 - 한때 보르도 건축학교의 작업실로도 사용
  - 디지털시티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코워킹 스페이스 ‘노드’를 이 공간에 만들기로 하고, 2012년 9월에 개관
- 다양한 종류의 시민·전문가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음
  - 하루 이틀 출장차 보르도를 방문하는 외부인이 간단한 업무를 볼 때, 회의장소가 필요할 때,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한시적 그룹, 대중 대상의 각종 강좌·이벤트 등에 활용



[그림 2]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이용하는 노드

- 시가 소유하고, 디지털업종 종사자 모임이 만든 민간단체가 관리
  - 공간의 소유권은 보르도시가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업종 종사자 모임에서 만들어진 민간단체 아퀴눔(Aquinum)이 관리를 맡음

- 주변 자치구와 민간 파트너십 기업의 지원을 받음
  - 노드 프로젝트는 시 차원의 사업이며, 보르도광역시(Communauté Urbaine de Bordeaux)와 지롱드도의회 (Conseil Général de la Gironde)도 재정지원
  - 아퀸, 유통업 회사 세디스카운트, 아키텐 그룹 등 민간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을 받음

### 보르도 코워킹 스페이스 현황

- 2019년 현재 노드를 포함하여 30여 개가 넘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보르도시 전역에 골고루 분포
  - 하루 단위는 물론, 월·연 단위로 일정한 세를 내고, 오픈 스페이스의 책상이나 사무실 한 칸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역사적으로 와인 창고나 아틀리에가 많았던 보르도시의 특징에 걸맞게 로프트(loft)<sup>1)</sup> 형태의 공간이 많음.

1) 건축에서 건물 내부의 상부 공간, 또는 상업용·공업용 건물에서 주로 창고로 쓰이는 구획되지 않은 넓은 공간

<http://www.bordeaux.fr/o48524/node>

<https://www.aquinum.fr/>

<https://www.20minutes.fr/bordeaux/2481971-20190407-bordeaux-ateliers-bureaux-apprentissage-comment-planche-veut-faire-sortir-bois>

<https://objectifaquitaine.latribune.fr/business/immobilier/2018-12-19/coworking-spaces-proposera-500-postes-de-travail-a-bordeaux-belcier-en-juin-2019-801630.html>

# 사회환경 변화 반영한 ‘남녀 공동참여 계획’ 시행

일본 오사카府 / 사회·복지

일찍이 1981년부터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했던 일본 오사카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단독세대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오사카 남녀 공동참여 계획(2016~2020)’을 추진 중임.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성별과 관계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녀 인권 존중, 남녀 공동참여, 가정·직장 생활의 양립 등을 지원

## 개요

-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실현 노력을 지속해온 오사카부
  - 오사카부는 1981년 ‘여성의 자립과 참가를 추진하는 오사카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을 보임
  - 특히 2001년 7월에는 ‘남녀 공동참여 사회 기본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녀 공동참여 사회를 실현하고자 2010년을 목표로 한 ‘오사카 남녀 공동참여 계획’(이하 ‘계획’)을 수립
  - 그 후 계획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나타난 과제나 사회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계획을 재검토하였고, 현재는 ‘오사카 남녀 공동참여 계획(2016~2020)’을 시행
    - 주요 사회환경 변화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불안정한 고용 상황 지속, 단독 세대나 한부모 가정 증가 등

## 주요 내용

- ‘오사카부 남녀 공동참여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남녀 공동참여 계획의 5가지 기본이념을 확립하여, 3가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
  - 5가지 기본이념은 ① 남녀 인권 존중, ②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 등을 반영한 제도·관행이 남녀 공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 ③ 정책·방침의 입안·결정에 남녀 공동 참가, ④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가정생활과 다른 활동을 양립, ⑤ 국제사회의 대책 고려
  - 3가지 기본방침은 ①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활약, ②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③ 모든 세대의 남녀 공동참여 의식 양성

○ 기본방침 1: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활약

- ① 남성 중심의 일하는 방식 재검토와 직장생활 밸런스 추진
  - 구체적 대책: 경영자 등의 의식 계몽·일과 생활 조화·다양한 근로 방식 지원 등 일하는 방식 재검토와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정비, 보육소 정비 촉진 등 일과 육아 양립, 퇴직 후 재취업·창업 지원, 일하는 남녀 건강관리 대책 추진
- ② 정책·방침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촉진
  - 구체적 대책: 심의회위원·부직원·기업·의료분야·지역사회 등에 여성의 참여 촉진, 이공계 분야 등의 여성 인재 육성
- ③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펼쳐 모든 분야에서 여성 활약을 실현
  - 구체적 대책: 추진계획·사업주 행동계획 수립 등 법에 따른 대책 시행, 남녀 고용 기회 균등 추진

○ 기본방침 2: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① 평생 남녀 건강 지원
  - 구체적 대책: 임신·출산 등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 대책 추진, 사춘기에 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보건 대책 추진, 어린이 보건·의료 추진, 성인기·고령기의 건강 만들기 추진, 흡연·음주·약물 등에 따른 건강피해 방지
- ② 모든 여성 대상 폭력 근절
  - 구체적 대책: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형성을 목표로 가정폭력, 성범죄, 성매매·인신매매, 스토키 행위, 성희롱이나 임신부 괴롭힘, 아동 학대 등의 대책 마련과 계몽사업 추진
- ③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구체적 대책: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 지원, 육아비용 부담 경감 등 육아세대 지원, 고령자·장애인 복지 강화와 취업 촉진, 무장애화(Barrier-free) 등 고령자·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기본방침 3: 모든 세대의 남녀 공동참여 의식 양성

- ① 어린 시절부터 남녀 공동참여 의식 계몽
  - 구체적 대책: 학교, 가정, 지역 등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학습
- ② 남녀 공동참여 의식 조성
  - 구체적 대책: 남녀 공동참여 주간 등의 계몽 활동으로 주변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 오피니언 리더층의 의식 계몽, 다양한 방법의 교육·학습 기회 확보, 남성의 남녀 공동참여 의식 조성,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 표현 추진, 남녀 공동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수집·제공

- ③ 지역 활동 참여 촉진
  - 구체적 대책: 자치회 등의 지역사회에 남녀 공동참여 촉진, 여성의 관점에서 화재 대책 등 추진
- ④ 다문화 공생의 관점에서 남녀 공동참여 추진 정책을 펼쳐 모든 세대의 남녀 공동 참여 의식 조성
  - 구체적 대책: 남녀평등에 관한 해외 정보 제공, 외국인 대상 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 공생 추진
- 기본방침별로 구체적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계획 추진체계를 명확히 함
  - 계획 추진체계로는 산학관 연계 강화, 행정 추진체계 등의 내실화로 국민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획의 진행 관리와 검증·개선을 염두에 둬

<http://www.pref.osaka.lg.jp/danjo/danjo/danjoplan2016.html>

---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 311서비스, 앱·인공지능 활용으로 시민신뢰 ‘쑥쑥’

미국 시카고시 / 행정·교육

미국 시카고시는 시카고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믿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비(非)응급 상황 민원 서비스 311을 꾸준히 개선하는 중임. 소수자·이민자·관광객 등 누구나 이용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신고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공무원 업무부담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서비스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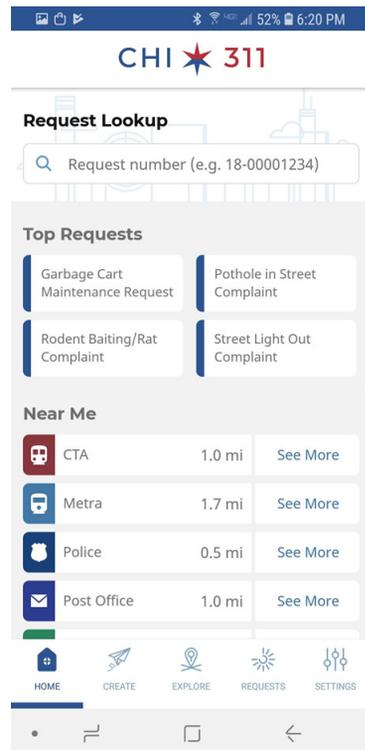
## 시카고 민원 서비스 311 개요

- 비응급 상황 대처용으로 개설된 민원 서비스 311 꾸준히 발전 중
  - 1998년 응급 상황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911’ 번호로 매년 37억 통의 연락이 오자, 당시 시장이던 리차드 M 데일리(Richard M. Daley)가 비응급 상황 대처용 민원 서비스 311을 개발
    - 이후 애플리케이션 도입, 인공지능 활용,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등 개선을 지속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로 성장 중
    - 지난 2018년부터 공식 애플리케이션 ‘CHI 311’ 도입·운영 중
  - 현재 민영화를 거부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 중
    - 311서비스는 매년 약 3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영화를 이용한 예산 절약보다 스마트폰 앱 등의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절약에 집중
    - 2016년에 예산 확보를 위해 311서비스의 민영화를 공론화했지만, 주민 반발과 상담센터 직원의 거센 항의로 무산

## 현재 주요 서비스와 개선 사항

- 신분과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카고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쉽게 상담하고, 개선요청 가능
  - 미국시민은 물론 불법이민자·단기거주자·외국인·노숙자 등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이 어렵지 않게 제출하는 서류와 개인정보를 간소화
- 시민생활의 전반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전달 시스템 구축
  - 시정부가 담당하는 쓰레기·병해충·도로 관리 등의 민원부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생·근무환경·소수자 인권·동네 간 갈등 등의 문제까지 관련 부서에 전달

- 공익에 관한 대중적 민원은 스마트폰 앱에서 구글지도를 이용해 민원 내용과 해결 상황을 공개
- 민간기업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유급병가 거부는 노동청과 별개로 시카고 인권 조례에 따라 직접 조사
-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
  - 지역주민이 제기한 불편 민원의 개선상황을 공유하여 공무원의 반복적 업무를 예방
- 소수자·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에 노력
  - 시카고 경찰의 흑인 상대 폭력진압 사건이 전국에 보도된 이후, 시민의 요청으로 소수자·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신고 기능이 추가
    - 범죄율 억제와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운영 중
  - 기존에는 소수자·이민자가 불편민원 제기나 경찰 신고가 불가능했지만, 311 앱에서 신고가 가능
    - 신고자는 무기명으로 사건의 정황, 사고 시간·장소, 관련 증거물(사진·영상) 제출이 가능
    - 이민자의 인권 침해와 인건비 체불 문제도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며, IRS(국세청)와 같은 부서에 알리지 않고 시가 직접 조사 후 조치
  - 신고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
    - 사건·사고뿐 아니라 인종 차별, 성소수자 차별,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정치적 차별 등으로 세분화된 신고 카테고리를 운영하여, 사건 전례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민원인 보호를 위해 신고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앱 신고 기능을 추가
- 인공지능 활용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 개선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원 해결의 속도·정확도를 높이고 공무원 업무부담도 줄여
    -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시 공무원의 반복적인 업무는 줄이고, 시민의 문제와 민원을 해결하는 속도와 정확도는 높이는 중
    -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분화된 카테고리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향상



[그림 1] 311서비스 스마트폰 앱 화면

- 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서 자주 들어오는 민원 내용과 지역을 분석해, 해당 지역 위주로 공공시설물이나 복지기관 등을 계획
- 노인·장애인·문맹·기타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뿐 아니라 전화 상담,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 통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의 신뢰감을 높이고 생활 만족도를 향상
  - 민원 부처마다 다른 상담번호 운영을 없애 정부 예산 절약과 시민 혼선 방지
  - 전화·앱을 이용한 높은 접근성과 세분화된 카테고리 운영으로 많은 시민이 정부가 개개인의 불편·불편을 이해한다고 느끼며, 정부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 생활의 만족도도 향상
-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민자·관광객·시민을 위해 다양한 언어의 상담원 보유
  -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민원 서비스가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의 상담원이 상시 근무
  - 관광객을 비롯한 단기 거주자도 시카고에 임시 거주하는 동안 불편·차별을 당했을 때 적극 민원을 해결해 ‘좋은 도시’ 이미지 상승에 집중

## 향후 발전 방향

- 311서비스 앱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넓은 범위의 복지 추구
  - 311 앱은 시카고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이 아닌 이민자·관광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편리한 기능 중심의 발전을 추구
  -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카탈로그, 브로슈어,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적극 홍보
  -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계층을 위해 전화·문자·오프라인 상담 창구 등도 적극 운영·홍보하며 넓은 의미의 복지를 목표

<https://311.chicago.gov/>

[https://311.chicago.gov/s/explore?language=en\\_US](https://311.chicago.gov/s/explore?language=en_US)

[https://311.chicago.gov/s/topic/0TOt000000TUoVGAW/city-clerk?language=en\\_US&tabset-c1a9f=2](https://311.chicago.gov/s/topic/0TOt000000TUoVGAW/city-clerk?language=en_US&tabset-c1a9f=2)

<https://www.chicago.gov/city/en/sites/311ProjectInformation>

강기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첨단기술 활용 접근성 극대화

캐나다 에드먼턴市 / 행정·교육

캐나다 에드먼턴市에서 운영하는 에드먼턴 공공도서관(EPL: Edmonton Public Library)은 세계 도서관 저널에서 2014년 올해의 도서관으로 선정된 캐나다 최초의 도서관임. 도서 열람의 기본 기능 이외에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운영 철학에 따라 다양한 지역 교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

## 주요 서비스

- EPL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전략적 계획을 구현한 캐나다 최초의 공공도서관
  -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 철학은 2008년에 본격 도입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17명의 지역 사서를 고용
    - 모든 지부에 지역사회 사서를 두어 고객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장벽을 확인·제거하는 한편,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
    - 사서들은 지역보건센터, 원주민 교육 프로그램, 임신·육아 청소년 지원센터, 이슬람 여성그룹 등의 지역사회단체와 협력 과정에 총 970시간을 투자(2013년)
  - 장기간 보호·수감시설에 수용된 사람, 노인 숙소 거주자 등에게 사서가 직접 선택한 자료를 배달해주는 재택 서비스를 제공
- 시각장애인과 난독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제공
  - DAISY Books(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는 시각장애 또는 난독증을 포함해 인쇄물을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고안된 일종의 오디오북
    - 일반적인 오디오북과는 다르게 검색, 줄 단위 탐색,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이 있으며, 전용 플레이어로 제공
  - CELA(The Centre for Equitable Library Access)는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이미지 없는 음성파일 형태의 독서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 자료는 직접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우편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이거나 약시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설명이 탑재된 동영상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나 약시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 시각적 요소를 음성으로 묘사하는 DVS (Descriptive Videos) 기능이 추가된 영상자료를 제공

- 첨단기술을 이용한 접근성 극대화
  - 드론을 이용한 원거리 도서 대출
    - 2019년 4월 공공도서관으로는 최초로 4개의 ‘문맹 퇴치 드론’을 이용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
    - 사정상 도서관에 접근하기 힘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고객에게는 배달 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알려 장애물이나 반려동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



[그림 1] EPL 도서 대여 드론

-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NNELS, National Network for Equitable Library Service)
  - 전통적인 인쇄물 이외의 형식으로 약 10,000권의 도서를 제공하는 온라인 공공 도서관으로, 도서관에 내방한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 가능
- 하나의 도서관 카드로 여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ME Library 서비스 자체 개발
  -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의 카드를 가진 고객이 다른 도서관 계정과 소장도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웹 기반 서비스
  - 고객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도서관 카드를 이용해 다른 참여 도서관에 접속해 자유롭게 편리하게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음
-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주변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기 제공
  - 루프신호 생성기를 제공하여 호환이 가능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이 주변의 소음·유사음·잔향 등을 없애고 선명하게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움
- 상호대차 서비스의 확대
  - 관할 21개 도서관의 상호대차는 일반화된 서비스이지만, 대출하려는 서적이 없을 때는 상호대차의 범위를 알버타주 연구소, 대학기관, 정부 등의 도서관으로 확대
- 3D프린터, 녹음시설, 증강현실 등 다양한 장비 활용 가능
  - ‘EPL Maker’ 공간은 고성능 컴퓨터, 3D 프린터, 즉석 출판 장비(Espresso Book Machine), 디지털 변환 장치 등을 제공

- 게임 스테이션, 전문 음향 녹음 스튜디오, 디지털 터치 테이블, 증강현실 기기 보유
-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빈곤대책의 기능도 담당하여 소외계층에게 따뜻함과 성장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홍보
  - 캐나다 최초로 사회활동가를 고용하였으며(2011년), 중독 지원, 의료 진료, 고용 상담, 자살 예방 등 6천 개 이상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
  - 사회적 비용대비 편익 계산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투자비용 63만 캐나다달러(5억 6,700만 원)에 편익 365만 캐나다달러(32억 8,500만 원) 달성
  - 신분증 또는 거주 증명서가 없는 고객도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등록 카드를 과감하게 폐지
    - 신원확인이나 거주증명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1회 대출과 도서관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
  - 에드먼턴 젊은 범죄자 센터와 협력하여 수감자에게 도서를 제공

## 운영

- 21개 지부를 하나의 도서관처럼 운영하는 팀 구성 프로그램 도입
  - EPL은 21개 지부와 645명의 직원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팀 구성 프로그램을 적용
  - 지부 간 일관성이 80%에 달하며, 고객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모든 지부에서 제공
    - 유아 독서, 취학아동 서비스, 여름 북클럽, 디스커버리 서비스, 지역사회 주도 서비스, 성인 서비스, 환경팀 등이 공통된 핵심 팀
- 민주적 의사 결정으로 도서관을 운영
  -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환경
    - EPL의 큰 결정사항 중 상당수가 인턴이 추진한 사업

<https://www.epl.ca/>

<https://www.epl.ca/news/epl-launches-epl2go-delivery-drones/>

<https://www.libraryjournal.com/?detailStory=2014-galej-library-of-the-year-edmonton-public-library-transformed-by-teamwork>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 ‘1,000개의 녹색지붕’ 등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 지원

독일 베를린시 / 환경·안전

베를린시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기상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택의 오래된 석유난방을 저탄소 난방으로 교환하는 사업과 ‘1,000개의 녹색지붕’이라는 지붕녹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배경과 개요

-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베를린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에서 제출한 프로그램
  - 베를린의 2020~2021년 예산에서 석유난방 교환 사업에 600만 유로(78억 원), 지붕녹화 사업에 350만 유로(39억 원)를 지원할 예정
    - “우리는 이미 베를린에서 급속한 기후 온난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 베를린을 최대한 기후에 강한 도시로 만들어야합니다.”
      -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의원, 레기나 귄터(Regina Günter)
  - 베를린 상원은 베를린 투자은행(IBB: Investitions Bank Berlin)의 자회사인 IBB 비즈니스팀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

### 주요 내용 1: 석유난방 교환 프로그램

- 낡은 석유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CO<sub>2</sub>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
  - 베를린시가 설정한 기후중립화 목표에 따르면, 시는 2050년까지 1990년 CO<sub>2</sub> 배출량의 85%를 줄여야 함
  - 현재 베를린에는 약 66,000채의 주택이 석유난방을 쓰고 있으며, 주택 난방유의 소비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간 CO<sub>2</sub> 배출량은 120만 톤에 이룸
    - 이는 베를린 전체 CO<sub>2</sub> 배출량의 6%를 차지
  - 이에 따라, 석유난방 시스템을 기후친화적 기술을 이용해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지원
    -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약 3만 톤의 CO<sub>2</sub>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

-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는 낡은 난방 시스템을 교체할 때 IBB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개보수 및 에너지 절약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상원의원 레기나 쿤터는 현재 연방정부의 왜곡된 조세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
  - 현행 세법에선 가스난방보다 석유난방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쿤터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과세가 필요함을 연방정부에 촉구

## 주요 내용 2: '1,000개의 녹색지붕' 프로그램

- 개인의 지붕공간을 이용하여 더 많은 녹지를 만드는 계획
  - 현재 베를린의 녹화된 지붕은 약 18,000개로, 도시 전체 지붕 면적의 약 4%를 차지
    - 베를린의 주민 1인당 녹색지붕의 면적은 1.1㎡인데, 뮌헨과 프랑크푸르트가 베를린보다 2배가량 녹색지붕의 면적 비율이 높은 상황
    - 따라서 베를린 상원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도시보다 뒤쳐진 베를린의 녹화 지붕 비율을 늘리고자 함
- 주요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붕녹화 사업 지원과 혁신적인 실험 사업 지원의 두 가지
  - 1) 기존 방식에 따른 지붕녹화 사업은 건물당 최대 6만 유로(7,900만 원), 1㎡당 최대 60유로(7만 9천 원)를 지원하며, 이는 전체 녹화 비용의 75%가량을 차지
  - 2) 건물녹화 혁신모델을 찾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 '녹색지붕 랩'(Green-Roof-LAB)
    - 지붕만이 아니라 건물의 전면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포함하는 실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추구
    - 앞선 사업과 달리 100% 비용을 지원하며, 전문 위원회가 개별 사례를 보고 판단하여 자금 조달을 결정
    - 녹화 지붕에 관한 실험적 사례의 신청은 올 9월 10일까지며, 베를린 수자원 공사(www.bwb.de)에 지원
  - 앞서 비용을 조달하기로 한 IBB 비즈니스팀 주식회사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녹화사업 신청자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베를린 수자원공사 내 기구인 '베를린 빗물 에이전트'(Berliner Regenwasseragentu)가 녹색지붕에 관한 무료 조언을 제공
    - 녹색지붕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예를 들어 지붕에 어떤 식물이 적합한지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녹색지붕은 기상피해 예방, 온도조절, 공기질 개선, 생태계 안정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 발생
  - 녹화된 지붕은 빗물을 저장하여 온난화에 따른 가뭄·호우 등의 피해를 완화

- 예를 들어 호우 시 빗물이 녹화 지붕에 머물게 되면서, 하수도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아 더러운 물이 베를린 슈프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온도 측면에서 녹지는 건물 자체를 열과 추위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물 증발 효과로 주변 공기의 온도를 내려 열대야 등을 예방
  - 지붕 위의 녹지는 동식물, 특히 곤충이 생활하고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서식지로 활용되어 도시 생태계를 안정화
  - 도심 인구와 건물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족해진 녹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
    - 특히 베를린의 좌파당과 녹색당이 신축 주택과 녹지 사이의 비율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붕의 녹화사업은 정치적인 합의점이라는 의미를 지님
  - 이외에도 공기질 개선, 자유로운 공공공간의 창출 등 지붕 녹화사업은 높은 가치를 지님
- 한편, 지붕녹화 사업이 베를린의 다른 환경 보호 프로그램인 태양열패널 설치사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 하지만 레기나 쿤터 의원은 베를린에는 현재 지붕 녹화가 충분히 되지도, 태양열 패널이 많지도 않기에, 녹화사업을 위한 지붕의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
    - 또한, 녹화 지붕에도 태양열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

<https://www.neues-deutschland.de/artikel/1120105.klimaschutzprogramm-auf-daechern-soll-es-gruenen.html>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817029.php>

<https://www.regenwasseragentur.berlin/1000-gruene-daecher-programm/>

<https://www.tagesspiegel.de/berlin/klimafreundliche-stadtentwicklung-wer-hat-das-schoenste-gruendach-in-berlin/22986608.html>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5933835/Senat-foerdert-gruene-Daecher-und-Austausch-von-Oel-heizungen.html>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8/08/gruene-daecher-berlin-foerderprogramm-senat.html>

<https://www.berlin.de/special/immobilien-und-wohnen/nachrichten/berlin/5794199-5650048-1000-gruene-daecher-berlins-daecher-soll.html>

# 새 학기부터 어린이에게 시내 교통비 전액 지원

프랑스 파리시 / 도시교통

프랑스 파리시는 환경정책 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올 9월부터 4~11세 어린이에게 파리시내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함. 또한, 중고등 학생의 교통비는 반액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정액권 구입비용도 지급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든 대중교통 이용권을 무료로 충전해주는 혜택을 제공

## 개요와 배경

- 폭염·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시내진입 제한과 함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모색
  - 어린이·청소년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계획
- 유치원·초등학생의 교통권은 전액, 청소년은 50% 지원
  - 2019년 9월 1일부터 파리시에 거주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2019~2020학년도 정기 교통 정액권의 요금을 전액 지원
  - 중·고등학생의 정기 교통 정액권은 50% 지원
  - 20살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의 대중 교통비는 전액 지원
  - 청소년이 공유 자전거 서비스 벨리브(Velib)에 등록할 때 정액권 구입비 지원

## 주요 내용

- 파리시에 사는 유치원·초등학생 정기 교통권 지원
  - 통학용 교통 정액권(Imagine R)의 구매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 현재 1년 어린이 교통 정액권의 가격은 350유로(46만 원)
  - 이번 조치로 약 16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올해는 파리 시민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며, 일드프랑스<sup>1)</sup> 지역은 계속 협의 중
  - 중고등학생에게는 8유로(1만 원)의 서류 작성비를 포함한 정액권 구매 비용의 절반을 환불
    - 약 13만 5천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예정

1) Ile-de-France, 프랑스 13개 레지옹(région, 지방) 중 파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

- 20살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의 대중 교통비 지원
  - 작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 교통권을 지급하는 '패스 파리 액세스'(Pass Paris Access) 정책 중 하나로, 올 6월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제공
  - 버스, 지하철, 트램, 일드프랑스 교외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나비고 패스(passe Navigo)를 무료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 학교 교육 시스템에 속해있지 않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도 같은 혜택 제공
    - 약 6천 명의 파리지 장애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14~18세 청소년이 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등록하면 기본 정액권의 구매 비용을 지원
  - 자전거 공유서비스 벨리브에서 청소년 대상 상품인 'V-Plus jeune'의 1년 정액권 구매 비용 27.60유로(3만 6천 원)를 지원

## 시사점

- 교통비 지원 정책은 자동차 이용을 줄여 대기오염을 막으려는 환경정책 중 하나
- 가정의 대중교통 이동빈도를 높여 구매력 상승을 유도해,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https://www.paris.fr/actualites/des-transports-en-commun-gratuits-pour-les-jeunes-parisien-ne-s-6872>

<https://www.api-site.paris.fr/paris/public/2019%2F5%2Fgratuit%C3%A9.PDF>

<https://www.paris.fr/actualites/seniors-et-adultes-en-situation-de-handicap-gratuite-du-pass-navigo-des-le-1er-juin-5863>

## 세계도시동향 제459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7월 1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